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25 (사랑의 하느님)	211 (주여 나의 몸과 맘)	166 (생명의 양식)	454 (주님의 풍성한 강복을)

제 1독서 | 여호수아 24,1-27.15-17.18ㄴㄷ

<그분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그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 주셨습니다.>

화답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좌)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사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우)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좌)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

○(우)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

○(좌)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짓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값을 벗으리라. ◎

제 2독서 | 에페소서 5,21-32

< 우리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 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6,60-69

Today's Gospel, <John 6,60-69>

After hearing his doctrine many of the followers of Jesus said, 'This is intolerable language. How could anyone accept it?' Jesus was aware that his followers were complaining about it and said, 'Does this upset you? What if you should see the Son of Man ascend to where he was before? 'It is the spirit that gives life, the flesh has nothing to offer.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But there are some of you who do not believe.' For Jesus knew from the outset those who did not believe, and who it was that would betray him. He went on, 'This is why I told you that no one could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allows him.' After this, many of his disciples left him and stopped going with him.

Then Jesus said to the Twelve, 'What about you, do you want to go away too?' Simon Peter answered, 'Lord, who shall we go to? You have the message of eternal life, and we believe; we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 8항-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회칙>

성체성사를 생각할 때, 또 사제와 주교로서,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지낸 삶을 되돌아볼 때, 저는 자연스레 제가 성찬례를 거행할 수 있었던 여러 기회와 장소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당 사목을 맡은 니에고비치의 성당, 크라쿠프의 성 플로리아노 대성당, 바벨 주교좌 성당, 성 베드로 대성전을 비롯한 로마와 세계 곳곳의 여러 대성전과 성당들이 기억납니다. 산길, 호숫가, 바닷가 등에 지어진 경당에서 거룩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장과 도시의 광장에 세운 제대에서도 미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거행한 성찬례를 통하여 저는 성체성사의 보편적인 특성, 다시 말해 우주적인 특성을 강렬하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주적입니다! 성찬례는 시골 성당의 초라한 제대에서 거행될 때에도 어떤 면에서는 늘 세상의 제대에서 거행되기 때문입니다. 성찬례는 하늘과 땅을 결합시킵니다. 성찬례는 모든 피조물을 끌어안고 그 속에 충만히 스며듭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서는, 단 한 번의 숭고한 찬양행위로, 모든 피조물을 무에서 창조하신 분께 되돌려 드리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분께서는 십자가의 성혈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셨으며, 그리하여 모든 구원받은 피조물을 창조주이신 아버지께 되돌려 드리십니다. 그분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사제직을 통하여 그렇게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성체성사 안에서 성취되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느님의 손에서 비롯된 세상이 이제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아 하느님께 되돌려집니다.

글로 만나는 성화 -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성모 승천'



(티치아노, 성모승천, 1516-1518년, 산타 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대성당, 베네치아)

성모승천 교리는 동정 성모 마리아께서 지상 생애를 다 마친 다음, 육신과 영혼이 함께 천상의 영광으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이 교의는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사도헌장 ‘지극히 관대하신 하느님(Munificentissimus Deus)’을 통해 교황 무류성으로 선언함으로써 믿을 교리로 지정되었다. 이로써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모 마리아 4대 교리의 가르침이 완성되었다 (1. 하느님의 어머니; 2. 복된 동정녀; 3. 원죄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4. 성모승천). 하지만 성모승천이 예수님의 승천과 다르다. 예수님께서서는 참 하느님 이시기에 스스로 부활한 다음 승천하셨지만, 성모님께서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하느님에 의해 하늘나라로 들어 올림을 받았다. 이는 마리아가 구원 역사의 목표인 구원에 이르렀음과 한 인간이 하느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드러낸다.

티치아노 베첼리오 (Tiziano Vecellio, 1488-90~1576년)는 북이탈리아에서 출생한 이탈리아의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이다. 동정녀의 석관을 사라지게 만든 이 화가는 성모승천의 신비를 훌륭하게 묘사했으며, 성모님의 몸이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에 주목했다. 마리아는 나선형을 그리며 손과 몸통을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고 사도 아래에서 왼쪽으로 몸짓을 시작한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그녀를 환영하며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하느님 아버지는 당신 딸을 마중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인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드러내는 자비하신 하느님을 보여준다.

성모 마리아는 천사들의 호위 속에서 황금빛 광휘로 아름답게 물든 하늘로 오르시는데, 인성과 신성의 상징인 붉은 옷에 푸른 망토를 두르신 그녀 주위에서 천사들은 “복되신 성모님”이라는 노래를 합창한다. 이것은 그녀가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구원을 희망하였고, 그 희망대로 구원받은 인간임을 상징한다. 티치아노는 성모님의 영광을 색상의 절묘한 조화를 통해 더없이 우아하게 표현한다. 성모님과 사도들의 옷 색인 강렬한 빨강, 이것과 대조되는 녹색, 이 둘을 어우르는 황금빛 등을 조화시켜 생동감을 강하게 표현한다.

교황 비오 12세는 2차례에 걸쳐 세계 전쟁을 치른 인류를 성모승천 교의를 통해 위로하고자 했다. 이 교의로 마리아가 하느님 아버지께 들어 올려진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종말론적인 희망을 보증하고, 마리아가 입은 그 영광에 합류하려는 인류를 위한 축복이 선포되었다. 이 성화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본향이 하느님 나라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고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걸음 안에서 성모님께 우리의 구원을 전구해 본다.

-Fr. 권영명 안드레아

공지 사항

1. 견진성사 신청 안내

- * 신청 기한: 8월 25일까지
- * 교리 일정: 9월 1일부터, 매 주일 13:00~ 14:20
- * 견진성사 일시: 9월 29일(주일), 오후 3시
- * 견진성사는 1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9월 한가위 미사 및 성당 행사

이번 해에는 추석을 맞이하며, 9월 15일 (주일)에 한가위 미사 및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사 후 음식 나눔뿐 아니라 민속놀이 및 레크레이션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며 성당에서도 자체적으로 경품을 준비하지만, 더욱 풍성한 한가위 행사를 위하여 신자분들께 물품 도네이션을 겸손되이 청해보고자 합니다. 도네이션을 원하시는 신자분들께서는 사목회위원 분들을 통하여 도네이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8월 11일	유아·청소년: 25명	성인: 58명
8월 18일	유아·청소년: 27명	성인: 53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8월 25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다음주 (9월 1일)	이상명 다니엘, 이재희 루시아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9월 25일)	마태오반
다음주 (9월 1일)	요한반

| 우리들의 정성 | (8월 16일 ~ 8월 23일)

봉 헌 금	\$304			
교 무 금	\$640			
권모순	김요한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장호훈	전인철	정은영	조성민
조성희	주정자	한상지		

| 기도 지향 |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